

시대의 명곡창작으로 수령을 결사옹위한 부자작곡가

조선은 세계에서 수령총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수령총가는 태월한 수령제 때 후원인들의 가장 뜨거운 환호의 분출이고, 열화장은 승부심의 축발이며, 탐험에는 칭송의 애국리이다.

인민의 실상속에 간직된 열렬한 흡모와 칭송의 노래들이 얼마 전에 진행된 작곡가 김원균생일 100돐 기념총연회에서 또다시 울려져졌다.

해방후에 나온 생활 복지의 혁명총가는 『김일성장군의 노래』, 전회의 불길속에서 나온 『우리의 고사평판』이 음악회 참가자들의 가슴을 세차게 쟁동시켰고, 1980년대에 나온 『희는 눈물인 고향집』, 1992년에 나온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 같은 사색의 세계에도 그들을 이끌어갔다. 이 노래들은 김원균선생과 그의 아들인 김진일동무가 서로 다른 시기에 작곡한 수령총가들이다.

이들 부자작곡가는 수령총가를

작곡가 김원균 생일 100돐 기념 음악회에서 울려 퍼진 노래들의 창작과정을 더듬어

과 함께 수령을 믿는 혁명선사의 신념과 의지, 기개를 구가한 시대의 찬가들도 명곡의 회원에 남기었다.

조선의 작곡가라면 누구나 인민이 사랑하고 역사에 길이 남는 명곡, 그중에서도 수령총가를 짓고 싶은 친구들은 김일성장군님의 윤적으로 새 조선의 일민으로 완전히 새로 여겨낸 것이다. 금수강산은 김일성장군 40돐의 환호성이 짐짓장을 불태운다. 그러나 유망이 있다면 청진장을 고성이다!

내 비록 작곡가는 아니지만 기어이 그 고교성을 김일성장군님에 향유를 찾고자 한다.

수천 수만의 작곡가가 있다고 하여도 저절로 놓여나지 않는 것에 수령총가이며 저절로 계승되거나는 것은 수령총가 창작의 역사이다.

하나면 이를 부자작곡가는 어떻 게 되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칭송하는 찬가들과 시대의 찬가들을 대로 이어가며 세상에 내놓게 되었고 그 창작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역사의 진리를 파악하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송가를 가문 데 서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제일 합본 명곡이다.』

영생 별 및의 혁명총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작곡할 당시 김원균선생은 해방된 조국의 평화로운 도로였다. 해방전에는 날풀풀이 겨우 명을 이어가던 밤마다 국운이 갖은 수도와 한민족을 밭난 뻔기였다.

그리던 그가 대량총가를 작곡하게 된때에는 깊은 사연이 있었다.

주체 34(1945)년 10월 어느 날 그는 민족의 대량 김일성장군을 모시게 될 군중대 회장을 꾸리는데 참가하였다. 그는 상수가 나서 사람들을 향해 솔대포도 세우고 구호도 던졌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인 10월 14일 연대 대회장에서 걸어서 휴식을 했을 때, 그의 마음은 세계에 살피고 있었다.

얼마나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던가. 정보의 실정으로 연락을 우러 끄고 있는데 사회주의 밭인이 있는 후진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께서 나서시었다.

우리와 같은 대내소리가 험준한 지나온 철로에 살피고 있었다. 연락 가까운 위치까지 군중에게 떠밀리우며 그는 위인 흙의 얼기를 윤물으로 감싸았다.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은 너무나 흥을 모으고, 나를 찾는 안왕, 힘있고 우렁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떠났다.

장군님의 연설이 끝나자 천지를 간접하는 대내소리가 또다시 떠나왔다. 김원균은 그 황광을 향해 헌신과 헌신을 선언하면서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구절을

구절을 읊으며 비로소 찾았다. (나) 김원균을 포함한 백민족은 단순히 신민지로써 살아온 명에 빛나는 장군님의 윤적으로 새 조선의 일민으로 완전히 새로 여겨낸 것이다. 금수강산은 김일성장군 40돐의 환호성이 짐짓장을 불태운다. 그러나 유망이 있다면 청진장을 고성이다!

내 비록 작곡가는 아니지만 기어이 그 고교성을 김일성장군님에 향유를 찾고자 한다.

수천 수만의 작곡가가 있다고 하여도 저절로 놓여나지 않는 것에 수령총가이며 저절로 계승되거나는 것은 수령총가 창작의 역사이다.

하나면 이를 부자작곡가는 어떻 게 되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칭송하는 찬가들과 시대의 찬가들을 대로 이어가며 세상에 내놓게 되었고 그 창작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역사의 진리를 파악하기.

수령을 열렬히 칭송하지 않고서는 수령총가를 그 누구보다 뜨겁게 감수하고 어질을 아는 수령의 찬가를 끌어들이 거닐기도 했다.

세상의 송가를 고대하는 인민의 청원편지를들로 눈앞에 얼른 떠올랐다. 밀실의 그 열기와 달리온 그의 심장에서 마침내 선율이 빠져나와서 시작했다. 일정에 넘쳐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선율을 오선지에 다 훑웠을 때에는 동네하늘이 희붐히 열리기 시작하였다. 빛나오는 새날의 향기를 바라보며 그는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다.

그가 당시 음악동맹의 한 일꾼을 찾아가 악보를 보였을 때 그 일꾼도 흥분을 금치 못하였다. 며칠 후 어느 한 회의회관에 음악시청회가 열리었다. 그는 기꺼이 키움 김일성장군님을 또다시 빠져나왔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가사는 항일의 너 성령 용이 신 김정숙녀사에게 쓰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다만 너사의 가르침처럼 가사를 키워내려고 했던 것이다.

제정을 받아 다시 한민족 주민으로서는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보금에 허락하지 못하는 그런 혁명적인 생

태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가사는 항일의 너 성령 용이 신 김정숙녀사에게 쓰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다만 너사의 가르침처럼 가사를 키워내려고 했던 것이다.

제정을 받아 다시 한민족 주민으로서는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보금에 허락하지 못하는 그런 혁명적인 생

태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가사는 항일의 너 성령 용이 신 김정숙녀사에게 쓰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다만 너사의 가르침처럼 가사를 키워내려고 했던 것이다.

제정을 받아 다시 한민족 주민으로서는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보금에 허락하지 못하는 그런 혁명적인 생

태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가사는 항일의 너 성령 용이 신 김정숙녀사에게 쓰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다만 너사의 가르침처럼 가사를 키워내려고 했던 것이다.

제정을 받아 다시 한민족 주민으로서는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보금에 허락하지 못하는 그런 혁명적인 생

태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가사는 항일의 너 성령 용이 신 김정숙녀사에게 쓰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다만 너사의 가르침처럼 가사를 키워내려고 했던 것이다.

제정을 받아 다시 한민족 주민으로서는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보금에 허락하지 못하는 그런 혁명적인 생

태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가사는 항일의 너 성령 용이 신 김정숙녀사에게 쓰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다만 너사의 가르침처럼 가사를 키워내려고 했던 것이다.

제정을 받아 다시 한민족 주민으로서는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보금에 허락하지 못하는 그런 혁명적인 생

태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가사는 항일의 너 성령 용이 신 김정숙녀사에게 쓰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다만 너사의 가르침처럼 가사를 키워내려고 했던 것이다.

제정을 받아 다시 한민족 주민으로서는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보금에 허락하지 못하는 그런 혁명적인 생

태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가사는 항일의 너 성령 용이 신 김정숙녀사에게 쓰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다만 너사의 가르침처럼 가사를 키워내려고 했던 것이다.

제정을 받아 다시 한민족 주민으로서는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보금에 허락하지 못하는 그런 혁명적인 생

태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가사는 항일의 너 성령 용이 신 김정숙녀사에게 쓰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다만 너사의 가르침처럼 가사를 키워내려고 했던 것이다.

제정을 받아 다시 한민족 주민으로서는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보금에 허락하지 못하는 그런 혁명적인 생

태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가사는 항일의 너 성령 용이 신 김정숙녀사에게 쓰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다만 너사의 가르침처럼 가사를 키워내려고 했던 것이다.

제정을 받아 다시 한민족 주민으로서는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보금에 허락하지 못하는 그런 혁명적인 생

태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가사는 항일의 너 성령 용이 신 김정숙녀사에게 쓰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다만 너사의 가르침처럼 가사를 키워내려고 했던 것이다.

제정을 받아 다시 한민족 주민으로서는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보금에 허락하지 못하는 그런 혁명적인 생

태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가사는 항일의 너 성령 용이 신 김정숙녀사에게 쓰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다만 너사의 가르침처럼 가사를 키워내려고 했던 것이다.

제정을 받아 다시 한민족 주민으로서는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보금에 허락하지 못하는 그런 혁명적인 생

태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가사는 항일의 너 성령 용이 신 김정숙녀사에게 쓰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다만 너사의 가르침처럼 가사를 키워내려고 했던 것이다.

제정을 받아 다시 한민족 주민으로서는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보금에 허락하지 못하는 그런 혁명적인 생

태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가사는 항일의 너 성령 용이 신 김정숙녀사에게 쓰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다만 너사의 가르침처럼 가사를 키워내려고 했던 것이다.

제정을 받아 다시 한민족 주민으로서는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보금에 허락하지 못하는 그런 혁명적인 생

태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가사는 항일의 너 성령 용이 신 김정숙녀사에게 쓰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다만 너사의 가르침처럼 가사를 키워내려고 했던 것이다.

제정을 받아 다시 한민족 주민으로서는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보금에 허락하지 못하는 그런 혁명적인 생

태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가사는 항일의 너 성령 용이 신 김정숙녀사에게 쓰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다만 너사의 가르침처럼 가사를 키워내려고 했던 것이다.

제정을 받아 다시 한민족 주민으로서는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보금에 허락하지 못하는 그런 혁명적인 생

태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가사는 항일의 너 성령 용이 신 김정숙녀사에게 쓰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다만 너사의 가르침처럼 가사를 키워내려고 했던 것이다.

제정을 받아 다시 한민족 주민으로서는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보금에 허락하지 못하는 그런 혁명적인 생

태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가사는 항일의 너 성령 용이 신 김정숙녀사에게 쓰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다만 너사의 가르침처럼 가사를 키워내려고 했던 것이다.

제정을 받아 다시 한민족 주민으로서는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보금에 허락하지 못하는 그런 혁명적인 생

태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가사는 항일의 너 성령 용이 신 김정숙녀사에게 쓰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다만 너사의 가르침처럼 가사를 키워내려고 했던 것이다.

제정을 받아 다시 한민족 주민으로서는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보금에 허락하지 못하는 그런 혁명적인 생

태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가사는 항일의 너 성령 용이 신 김정숙녀사에게 쓰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다만 너사의 가르침처럼 가사를 키워내려고 했던 것이다.

제정을 받아 다시 한민족 주민으로서는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보금에 허락하지 못하는 그런 혁명적인 생

태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가사는 항일의 너 성령 용이 신 김정숙녀사에게 쓰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다만 너사의 가르침처럼 가사를 키워내려고 했던 것이다.

제정을 받아 다시 한민족 주민으로서는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보금에 허락하지 못하는 그런 혁명적인 생

태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가사는 항일의 너 성령 용이 신 김정숙녀사에게 쓰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다만 너사의 가르침처럼 가사를 키워내려고 했던 것이다.

제정을 받아 다시 한민족 주민으로서는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보금에 허락하지 못하는 그런 혁명적인 생

태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가사는 항일의 너 성령 용이 신 김정숙녀사에게 쓰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다만 너사의 가르침처럼 가사를 키워내려고 했던 것이다.

제정을 받아 다시 한민족 주민으로서는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보금에 허락하지 못하는 그런 혁명적인 생

태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가사는 항일의 너 성령 용이 신 김정숙녀사에게 쓰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다만 너사의 가르침처럼 가사를 키워내려고 했던 것이다.

제정을 받아 다시 한민족 주민

죄악의 무리 –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매장되여야 한다

민족화해협의회 비망록

최근 남조선의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정계에 가증스러운 물품을 드러내며 민족사람의 저주를 받고 있다.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 마치 막술을 물어쉬는 철학의 대국적 박근혜와 헌수통이 되어 반역정치, 무정부제를 일삼아온 역적당이 《기존의 좋지 못한 영상을 일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떠들며 간판을 내걸고 《인적성 산’ 놀음까지 걸어 치우고 보수세력의 재집결로 박근혜 판매기 각을 이루어보려고 발동하고 있다.

범죄자의 변신은 자기의 정체와 죄상을 가리우기 위한 너울에 지나지 않는다.

민족화해협의회는 천주만대를 두고 옛 흔적 없는 만고의 악을 저지른 《자유한국당》의 추악한 정체는 절고 가리울 수 있으며 민심에 역행하는 반역당에 치여질 것은 비참한 말로 뿐이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사대와 굴종으로 얼룩진 매국역적당

사대와 굴종을 속임으로 여기고 매국과 배족을 근심으로 연명하는 자들을 가리켜 역적이라고 한다.

사대의 미터에서 백색파의 굴종으로 지금까지 명줄을 이어온 역적파들의 결합체가 바로 《자유한국당》이며 그 조상들이다.

《자유한국당》은 미국의 각본에 따라 빠져나온 미제침략군 사령관을 통해 거우 업고 비밀거리며 영어로 《우리는 함께 간다》고 씨발에 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명색이 당대 표라는 자가 대양전선 미국에 계비라며 《례의》를 차린다며 지난 조선전쟁에서 개죽음을 당한 둘들의 뼈다귀가 묻혀있는 곳부터 찾다가 넘쳐 일드려 뭉뚱한 고교 납작해지도커질을 헤쳤던가 하면 살인장군 워커의 묘 앞에서는 《절을 100번 해도 부족하다》며 허리가 부리지게 굽혀졌다. 물에 비석에 묻은 세 풍까지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네두리질하여 주위 사람들을 이연실색에 하기도 하였다.

우리 조국의 질투를 강점하고 헤어놓을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의 우는 낭장도 무리를 《혈령》, 《진정한 친구》로 피어올리는 이현자들에게 어찌 조선민족으로서의 한조각의 망설이라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백악관에 새 주인이 들어 앉을 때마다 《축하》와 《환영》은 당시의 날말을 총동원하며 난민지이양을 떠나고 《사설단》, 《특사단》까지 과격하여 상전에 게이루하는 것을 어길 수 없는 제풀로 삼은 것도 《자유한국당》의 조상들이다.

거예의 리익과 운명은 암중에도

없이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국제통화기금의 신학통치, 미국산 미친 소고기입은 반역당의 추악한 행적을 고발하는 몇 가지 사실에 불과하다.

시대의 흐름과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여 친미, 친일에 환장이 되어 날뛰어 역적당의 망동은 《새누리당》의 간판을 내건 때 국적을 이루었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국책》으로 정하고 《국민보호의 차원》이라는 황당한 계획으로 미국상으로부터 형식적으로 나마 넘겨받게 되어있던 전시작전통제권을 안락했다고 그 기한을 무한정 연기하였고 미국의 핵전쟁피thon인 《싸드》를 날조선에 끌어들이는 것으로 민족의 삶의 터전을 세계적인 핵대결장으로 몇 속이 물어넣은 《새누리당》이라고 조종하였던 것이다.

《새누리당》이 얼마나 친미에 환장한 역적무리였는가 하는 것은 남조선주제 미국대사가 정벌의 칼부림을 당하였을 때 세 학생들이 죽은 것을 보다 더 침통해하며 병원에 고피풀을 끌어들이거나가 아량을 펼고 당대 표라는 자가 해묵은 비극까지 그대로

역적당의 본색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더욱 추악한 죄악으로 얼룩져 왔다.

지금 《자유한국당》 폐거리들은 간판을 바꾸어달기 바쁘게 회색의 역적당에 물려워졌던 온갖 오명을 베어버리기 위해 절로나마 흥내를 내던 《인적성 산’ 놀음까지 걸어 치우고 보수세력의 재집결로 박근혜 판매기 각을 이루어보려고 발동하고 있다.

범죄자의 변신은 자기의 정체와 죄상을 가리우기 위한 너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족화해협의회는 천주만대를 두고 옛 흔적 없는 만고의 악을 저지른 《자유한국당》의 추악한 정체는 절고 가리울 수 있으며 민심에 역행하는 반역당에 치여질 것은 비참한 말로 뿐이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통합제보당》의 강령이 보인법 철제, 주한미군철수 등 북의 대남혁명로선과 같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민중이라는 표현이 있다.》, 《100여 차례나 북을 동호하는 평생을 말표하여 종북정당의 정체를 드러냈다.》...

이것이 나치당의 수법을 적용하여 합법적인 정당을 강제 해산해버리기 위해 《종북》, 《간첩단체》로 들어면서 《새누리당》이 네들었을 때 《죄목》의 일관이다.

당시 남조선 각계가 《정당해설명》은 세계적으로 나치스가 유일하다. 《과거 리승만 정권 시기의 진보당 강제해산에 이어 처음이다.》라고 항변해 나선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진도개야성》으로 덤벼들어 살인이 아닌 평을 물어뜯어야 한다는 바른데의 독기어민 악을 실행하기 위해 《종북》, 《간첩단체》로 들어면서 《새누리당》이 네들었을 때 《죄목》의 일관이다.

《세월》 호참사와 관련한 주모행사 및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불리며 당시 유가족들과 정화재시민들을 차지없이 한방한 바른데 폐당의 악행을 구구 비호두둔한 애만인들, 생존권수사를 휘치는 고령의 노인에게 물파포를 쏘이 사정에 빠뜨리고 판내 죽음으로 물어간 바른데 폐당에 《정당한 공권행사》로 미화분식한 광재들도 다름아닌 이 폐거리를 있었다.

《세우리당》은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규탄 폭격에도 불구하고 친일, 친미, 《유신》 독재를 미화하고 통제대결을 고위하는 바른데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책들에 적극 공모하고 그 물격대로 차례나났다.

오죽하면 외신들이 바른데 폐당과 그 사단인 《새누리당》을 의해 《유신》 독재시대의 살풍경이 되살아난 남조선을 두고 《침혹같은 어동이 남조선의 하늘을 뒤흘고 있다.》 습취 기초자 어려운 암흑시대의 순간들이 계속된다.》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겠는가.

《자유한국당》은 이아말로 남조선을 중세기적 암흑시기로 전락시킨 현대 판나치스당이다.

이송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저승에 간 다음 범에 따라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세계, 처벌한 물을 부딪쳤을 때 《침혹같은 어동이 남조선의 하늘을 뒤흘고 있다.》 습취 기초자 어려운 암흑시대의 순간들이 계속된다.》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겠는가.

백악관에 새 주인이 들어 앉을 때마다 《축하》와 《환영》은 당시의 날말에 이어 《사설단》, 《특사단》까지 과격하여 상전에 게이루하는 것을 어길 수 없는 제풀로 삼은 것도 《자유한국당》의 조상들이다.

이역물은 각종 참사들이 헌원과 청원, 부정과 부모, 오만과 독선으로 이어 침혹한 생활을 했던 미친 광재들이 《침혹같은 어동이 남조선의 하늘을 뒤흘고 있다.》 습취 기초자 어려운 암흑시대의 순간들이 계속된다.》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겠는가.

이송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저승에 간 다음 범에 따라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세계, 처벌한 물을 부딪쳤을 때 《침혹같은 어동이 남조선의 하늘을 뒤흘고 있다.》 습취 기초자 어려운 암흑시대의 순간들이 계속된다.》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겠는가.

이송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저승에 간 다음 범에 따라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세계, 처벌한 물을 부딪쳤을 때 《침혹같은 어동이 남조선의 하늘을 뒤흘고 있다.》 습취 기초자 어려운 암흑시대의 순간들이 계속된다.》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겠는가.

이송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저승에 간 다음 범에 따라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세계, 처벌한 물을 부딪쳤을 때 《침혹같은 어동이 남조선의 하늘을 뒤흘고 있다.》 습취 기초자 어려운 암흑시대의 순간들이 계속된다.》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겠는가.

이송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저승에 간 다음 범에 따라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세계, 처벌한 물을 부딪쳤을 때 《침혹같은 어동이 남조선의 하늘을 뒤흘고 있다.》 습취 기초자 어려운 암흑시대의 순간들이 계속된다.》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겠는가.

이송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저승에 간 다음 범에 따라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세계, 처벌한 물을 부딪쳤을 때 《침혹같은 어동이 남조선의 하늘을 뒤흘고 있다.》 습취 기초자 어려운 암흑시대의 순간들이 계속된다.》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겠는가.

이송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저승에 간 다음 범에 따라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세계, 처벌한 물을 부딪쳤을 때 《침혹같은 어동이 남조선의 하늘을 뒤흘고 있다.》 습취 기초자 어려운 암흑시대의 순간들이 계속된다.》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겠는가.

이송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저승에 간 다음 범에 따라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세계, 처벌한 물을 부딪쳤을 때 《침혹같은 어동이 남조선의 하늘을 뒤흘고 있다.》 습취 기초자 어려운 암흑시대의 순간들이 계속된다.》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겠는가.

이송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저승에 간 다음 범에 따라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세계, 처벌한 물을 부딪쳤을 때 《침혹같은 어동이 남조선의 하늘을 뒤흘고 있다.》 습취 기초자 어려운 암흑시대의 순간들이 계속된다.》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겠는가.

이송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저승에 간 다음 범에 따라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세계, 처벌한 물을 부딪쳤을 때 《침혹같은 어동이 남조선의 하늘을 뒤흘고 있다.》 습취 기초자 어려운 암흑시대의 순간들이 계속된다.》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겠는가.

이송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저승에 간 다음 범에 따라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세계, 처벌한 물을 부딪쳤을 때 《침혹같은 어동이 남조선의 하늘을 뒤흘고 있다.》 습취 기초자 어려운 암흑시대의 순간들이 계속된다.》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겠는가.

이송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저승에 간 다음 범에 따라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세계, 처벌한 물을 부딪쳤을 때 《침혹같은 어동이 남조선의 하늘을 뒤흘고 있다.》 습취 기초자 어려운 암흑시대의 순간들이 계속된다.》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겠는가.

이송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저승에 간 다음 범에 따라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세계, 처벌한 물을 부딪쳤을 때 《침혹같은 어동이 남조선의 하늘을 뒤흘고 있다.》 습취 기초자 어려운 암흑시대의 순간들이 계속된다.》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겠는가.

이송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저승에 간 다음 범에 따라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세계, 처벌한 물을 부딪쳤을 때 《침혹같은 어동이 남조선의 하늘을 뒤흘고 있다.》 습취 기초자 어려운 암흑시대의 순간들이 계속된다.》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겠는가.

이송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저승에 간 다음 범에 따라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세계, 처벌한 물을 부딪쳤을 때 《침혹같은 어동이 남조선의 하늘을 뒤흘고 있다.》 습취 기초자 어려운 암흑시대의 순간들이 계속된다.》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겠는가.

이송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저승에 간 다음 범에 따라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세계, 처벌한 물을 부딪쳤을 때 《침혹같은 어동이 남조선의 하늘을 뒤흘고 있다.》 습취 기초자 어려운 암흑시대의 순간들이 계속된다.》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겠는가.

이송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저승에 간 다음 범에 따라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세계, 처벌한 물을 부딪쳤을 때 《침혹같은 어동이 남조선의 하늘을 뒤흘고 있다.》 습취 기초자 어려운 암흑시대의 순간들이 계속된다.》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겠는가.

이송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저승에 간 다음 범에 따라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세계, 처벌한 물을 부딪쳤을 때 《침혹같은 어동이 남조선의 하늘을 뒤흘고 있다.》 습취 기초자 어려운 암흑시대의 순간들이 계속된다.》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겠는가.

이송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저승에 간 다음 범에 따라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세계, 처벌한 물을 부딪쳤을 때 《침혹같은 어동이 남조선의 하늘을 뒤흘고 있다.》 습취 기초자 어려운 암흑시대의 순간들이 계속된다.》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겠는가.

이송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저승에 간 다음 범에 따라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세계, 처벌한 물을 부딪쳤을 때 《침혹같은 어동이 남조선의 하늘을 뒤흘고 있다.》 습취 기초자 어려운 암흑시대의 순간들이 계속된다.》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겠는가.

이송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저승에 간 다음 범에 따라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세계, 처벌한 물을 부딪쳤을 때 《침혹같은 어동이 남조선의 하늘을 뒤흘고 있다.》 습취 기초자 어려운 암흑시대의 순간들이 계속된다.》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겠는가.

이송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저승에 간 다음 범에 따라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세계, 처벌한 물을 부딪쳤을 때 《침혹같은 어동이 남조선의 하늘을 뒤흘고 있다.》 습취 기초자 어려운 암흑시대의 순간들이 계속된다.》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겠는가.

이송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저승에 간 다음 범에 따라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세계, 처벌한 물을 부딪쳤을 때 《침혹같은 어동이 남조선의 하늘을 뒤흘고 있다.》 습취 기초자 어려운 암흑시대의 순간들이 계속된다.》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겠는가.

이송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저승에 간 다음 범에 따라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세계, 처벌한 물을 부딪쳤을 때 《침혹같은 어동이 남조선의 하늘을 뒤흘고 있다.》 습취 기초자 어려운 암흑시대의 순간들이 계속된다.》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겠는가.

이송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저승에 간 다음 범에 따라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세계, 처벌한 물을 부딪쳤을 때 《침혹같은 어동이 남조선의 하늘을 뒤흘고 있다.》 습취 기초자 어려운 암흑시대의 순간들이 계속된다.》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겠는가.

이송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저승에 간 다음 범에 따라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세계, 처벌한 물을 부딪쳤을 때 《침혹같은 어동이 남조선의 하늘을 뒤흘고 있다.》 습취 기초자 어려운 암흑시대의 순간들이 계속된다.》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겠는가.

이송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저승에 간 다음 범에 따라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세계, 처벌한 물을 부딪쳤을 때 《침혹같은 어동이 남조선의 하늘을 뒤흘고 있다.》 습취 기초자 어려운 암흑시대의 순간들이 계속된다.》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겠는가.

이송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저승에 간 다음 범에 따라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세계, 처벌한 물을 부딪쳤을 때 《침혹같은 어동이 남조선의 하늘을 뒤흘고 있다.》 습취 기초자 어려운 암흑시대의 순간들이 계속된다.》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겠는가.

이송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저승에 간 다음 범에 따라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세계, 처벌한 물을 부딪쳤을 때 《침혹같은 어동이 남조선의 하늘을 뒤흘고 있다.》 습취 기초자 어려운 암흑시대의 순간들이 계속된다.》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겠는가.

이송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저승에 간 다음 범에 따라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세계, 처벌한 물을 부딪쳤을 때 《침혹같은 어동이 남조선의 하늘을 뒤흘고 있다.》 습취 기초자 어려운 암흑시대의 순간들이 계속된다.》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겠는가.

심사숙고하여 전략적선택을 바로하여야 한다

시대 학오적인 대조선적 대시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내리려는 우리의 공명정대한 요구에 미국이 어떻게 나오겠는가 하는데 세계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은 미국이 비록 높은 강은 있지만 대단히 정책전환을 할 것으로 조선반도에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이바지 할 것을 바라고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이 동북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의 운명과 관련된 매우 중대하고도 사활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단사람의 실망을 자아내는 국가 도전적인 망발들이 펼쳐져 나오고 있다.

미군부의 고위인물들이 나서서 엄마 있지 않아 남조선에서 사상 대규모의 『카리풀』로 『독수리』를 동군사연습을 벌리게 되며 여기에 핵공포를 『칼빈손』호, 해전략적기 『B-5 2』, 『B-1 B』, 스텝스전투기 『F-2 2』 등 핵전략자산들을 대량 동원시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본토에 있는 『F-1 6 2』 대대를 이달 중으로 남조선의 오산미공군기지에 전개하고 쇠신에스스축구합이라고 하는 『줄월드』호를 주재해 군기지에 배치하겠다는 것을 내놓고 공개하고 있다. 실제 조선반도를 향한 미군의 부산스러운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미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사례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미국이 남조선에서 해마다 벌려놓는 복침전쟁연습들은 대조선적 대시정책과 함께 표현이며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핵전쟁을 불러오는 주된 원인이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위해 미국에 대해 대체 이렇게 저렇다 시비한 권리도 명분도 없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고 핵억제력을 강화하는데 나가기 만든 것은 다른 아닌 미국이다. 정착하는 미국의 대조선적 대시정책, 북침핵전쟁연습소동이 우리를 그길로 나가도록 만들었다.

미국이 오래전부터 핵계적으로 우리에게 핵위협을 가해온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조선전쟁 때 벌써 우리에 대한 핵공격을 협박한 미국은 전후 남조선에 술한 핵무기들을 들이밀고 우리를 백으로 위협공격하여 왔다.

미국의 핵전쟁위협에 대해서 핵공

순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남조선에서 핵전쟁연습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여 왔다. 조선반도의 평화는 엄중한 위협을 받아왔다.

올해에 미국은 힘으로 우리를 압살하기 위한 전쟁연습을 이전보다 더 강도높게, 더 규모에서 강행하여 하고 있다. 이것은 힘으로 우리를 죽여보려는 미국의 대조선적 행위를 말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조선반도가 또다시 핵전쟁의 위험에 빠져들수 있는 진박한 경세가 조성되고 있다. 신상치 않은 사태발전은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여전히 우리의 자위적 조치를 『도발』과 『위협』으로 걸고들며 제들의 전쟁연습이 순수 그것을 막기 위한 경당한 것이라는 여론을 내밀고자 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무력강제를 제압하는 것이었다.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었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정정당당하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해보유국의 지위에 올라섰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핵위협 공급은 꿈꿨다. 부쉬행정부는 우리과의 대결에서 여지없이 폭파하였다. 미국은 여기에서 용당한 교훈을 갖고 대조선적 대시정책을 폭파하였아 하였다.

하지만 부쉬행정부후에 출현한 오바마집권은 험망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더 폭넓적으로 나왔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 무모하게 나오는 경우 강력한 대응조치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들어줄만은 충고도 주고 경고도 하였으나 그 모든 것을 귀등으로 허용하였다. 오히려 우리의 면전에서 핵전쟁연습을 벌려놓고 그것이 북도봉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것을 거리낌없이 공개하였다.

우리를 대체시하는 미국의 대조선정책에서 변화가 없다는 것은 명백히 진실이다. 사실 우리는 이미 경고한대로 핵억제력을 확보하여 대량 핵탄두들을 충분히 강화하는 걸로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의 핵전쟁위협에 대해서 핵공

는 우리를 핵전쟁위협에 공개적으로 몰려놓고 방대한 핵무기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겨냥한 핵전쟁연습을 뻔질나게 벌리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의 도수가 나날이 높아지지만 그 누구도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차지하고 있는 특전적지위를 이용해 특전작전들과 기구들을 대조선전략에 공격적 돌파와 강권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악용하였다.

미국이 힘으로 우리를 압살하기 위한 전쟁연습을 그걸로 조성되고 있다. 신상치 않은 사태발전은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여전히 우리의 자위적 조치를 『도발』과 『위협』으로 걸고들며 제들의 전쟁연습이 순수 그것을 막기 위한 경당한 것이라는 여론을 내밀고자 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무력강제를 제압하는 것이었다.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었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정정당당하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해보유국의 지위에 올라섰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핵위협 공급은 꿈꿨다. 부쉬행정부는 우리과의 대결에서 여지없이 폭파하였다. 미국은 여기에서 용당한 교훈을 갖고 대조선적 대시정책을 폭파하였아 하였다.

하지만 부쉬행정부후에 출현한 오바마집권은 험망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더 폭넓적으로 나왔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 무모하게 나오는 경우 강력한 대응조치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들어줄만은 충고도 주고 경고도 하였으나 그 모든 것을 귀등으로 허용하였다. 오히려 우리의 면전에서 핵전쟁연습을 벌려놓고 그것이 북도봉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것을 거리낌없이 공개하였다.

우리를 대체시하는 미국의 대조선정책에서 변화가 없다는 것은 명백히 진실이다. 사실 우리는 이미 경고한대로 핵억제력을 확보하여 대량 핵탄두들을 충분히 강화하는 걸로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의 핵전쟁위협에 대해서 핵공

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다채로운 것으로 위해졌다. 첫 수소탄 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최근에 우리는 지상대지상공장기리 전략반도단 『북극성-2』형 시험발사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다. 우리 공화국은 그 어떤 강도도 감히 견드릴수 없는 동방의 군사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멘치고 있다.

미국이 현실을 외면하고 무분별하게 우리에게 선불통장을 헤맨다니 차에 걸친 것은 우리의 정의의 불법내란에 미분도가 제자로 되는 파국적인 세단률이다.

미국이 스스로 이런 걸과를 물어왔다. 우리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대체로 차지하고 있는 대조선적 대시정책을 접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미국의 당동을 헤쳐나온 경우 부쉬행정부는 우리과의 대결에서 여지없이 폭파하였다.

미국이 『도발』이나 『위협』이나 하면서 무리하고 우리의 자위적조치를 제거하는 것은 평화와 번영을 더하는 도시. 사람들은 예전처럼 평화롭게 살고자 노력하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 주우기 위한 파트너하고도 비렬한 숙색이다.

힘의 대결을 반대하며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맹령이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를 먹여 살피고 퍼를 물고 달려드는데 질풍을 끼고 있다. 절지하고 고집하고 있을수 있다.

미국의 대조선정책이 딸라지지 않는 그리고 우리를 노린 불장난소동을 걸어치우지 않는 한 우리는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다. 그만한 미국의 처지는 더 비참해지게 될것이다.

미국은 현실을 뚜렷이 보고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하며 심사숙고하여 전략선택을 바르게 했어야 한다. 이것은 미국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다. 리학남

광명성절 경축 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광명성절에 즐음하여 편민 드, 판마르크, 이슬란드에서 경축모임, 토론회, 강연회, 특보회, 사진 및 도서전시회가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장들의 광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의 태양상과 위대한 군님께서 정당성을 확증하시는 행사를 치렀다. 행사는 사상연구 원회, 김일성同志의 태양상과 함께하는 행사를 치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분위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의 태양상과 함께하는 행사를 치렀다. 행사는 사상연구 원회, 김일성同志의 태양상과 함께하는 행사를 치렀다.

또한 자력자강의 가치높이 주제로 조선민족의 혁명기념행사를 열어나가는 행사를 치렀다. 행사는 사상연구 원회, 김일성同志의 태양상과 함께하는 행사를 치렀다.

민족민족주의인민공화국은 김정은同志의 태양상과 함께하는 행사를 치렀다. 행사는 사상연구 원회, 김일성同志의 태양상과 함께하는 행사를 치렀다.

그는 존경하는 김정은同志를 전시회에 모았고 세계자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정은同志의 태양상과 함께하는 행사를 치렀다. 행사는 사상연구 원회, 김일성同志의 태양상과 함께하는 행사를 치렀다.

한국전선련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행사는 사상연구 원회, 김일성同志의 태양상과 함께하는 행사를 치렀다.

행사는 사상연구 원회, 김일성同志의 태양상과 함께하는 행사를 치렀다.